

둘러싸고 수증기가 모여들었고, 안개 낀 봉우리에서는 이따금 긴 불줄기가 뿜어져 나왔지. 곧 무시무시한 천둥소리가 숲과 평원과 계곡을 타고 굉음으로 울려 퍼지더니, 하늘이 폭포수와 다를 바 없는 지독한 비를 퍼부었네. 여기 보이는 산 옆구리를 따라 거품 가득한 격류가 쏟아졌어. 분지 바닥은 바다가 되고, 오두막이 있던 동산은 작은 섬이 되었지. 게다가 이 계곡 입구가 수문 역할을 하는 바람에, 흩이며, 나무며, 바윗돌 따위가 엉망진창으로 엉긴 채 울부짖는 물살에 휩쓸려 나왔네.

온 집안사람들이 라 투르 부인네 오두막에 모여 덜덜 떨면서 하느님께 기도했네. 그나마도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해 지붕에서는 삐걱삐걱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고 있었지. 문도 걸창도 잘 닫혀 있었지만 여기저기 골조 이음매 사이로 집안의 모든 사물이 분간될 정도로 맹렬한 빈개가 연신 내리쬘다네. 용맹한 풀은 도맹그를 데리고 나가더니,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두 오두막을 빈갈아 다니면서 한쪽 집에서는 버팀목으로 벽을 고정시키고, 또 다른 쪽 집에다가는 말뚝을 박았다네. 그러다가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저 가족을 달래며, 조만간 날이 개고 화창한 날씨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지.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저녁이 되자 비가 그치더니 다시 여느 때처럼 남동쪽에서 무역풍이 불어왔네. 비바람을 몰아치던 먹구름은 북서쪽으로 밀려나고, 저물어가는 해가 지평선 위로 모습을